



'달빛 매화'

“달과 어우러진 매화가 주는 상상력 생태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싶다”

시인 안도현은 한시(漢詩)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게 늘 아쉬웠다. 한시의 세계를 좀 더 친숙하게 열어보이고 싶었다. 버려두기에는 조상들의 깊고 소중한 사상과 철학이 너무 아까워서였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낭만과 사색이 농축했다고 생각하는 '매화시'는 특히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다.

화가 송필용에게 '매화'는 트레이드 마크같은 소재다. 오랫동안 담양에 작업실을 두고 그림을 그리는 송씨는 담양을 거점으로 한 가사문학권의 풍경들을 화폭에 담아왔고, 그 중심에는 '매화나무'가 있었다.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의 매화시 94편을 엮은 '열흘 가는 꽃 없다고 말하지 말라'(휴먼&북스 펴냄)는 시인 안도현의 제안에, 화가 송필용이 화답해 출간된 책이다. 여기에 퇴계 철학을 전공한 김기

현(전북대 윤리교육과) 교수가 합류했다.

이 책이 기존의 한시 번역서와 다른 점은 의역까지도 뛰어넘는 '과격'에 있다.

각각의 매화시를 김교수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역하고 한자 원문을 실었다. 안 시인은 '왜곡의 우려'까지도 감수하며 의역된 것을 토대로 오늘날의 시(詩) 감각에 맞게 시를 새롭게 구성했다. 각 시편들 사이 사이에는 송씨가 번역시들을 읽고서 그린 매화 그림들을 실었다.

송씨는 지난 2007년 도종환 시인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를 펴낸 적이 있다. 당시에는 절반 정도만 새롭게 그린 작품이었고, 또 시인의 다양한 시와 어울리는 옛 작품들도 골라 넣었다.

하지만 이번 책에 실린 19점 가운데 90% 이상이 신작이다. 은은한 달빛과 어우러진 핏빛 같은 흥매, 오랜 풍파를 견디고 고매(古梅) 등을 심혈을 기울여 담아냈다.

“제가 매화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문화관련 기획사인 '문학사랑'이 저를 안시인에게 소개해 인연을 맺었어. 2년여 동안 두 분이 계시는 전주를 수시로 방문해 많은 대화를 나눴죠. 함께 토론하고, 그분들 이야기 듣고, 번역된 시도 읽으면서 작업을 했죠.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구요.”

송씨는 퇴계의 여러 시 중에서도 달빛과 어우러진 매화에서 가장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했다.

“퇴계 선생 시중에 매화 가지 끝에 걸린 등근달에 대해 노래한 작품이 있는데 그게 참 마음에 들더군요. 매화와 어우러진 달이 주는 상상력은 끝이 없어요. 아마 퇴계 선생한테도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줬을 거예요.”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차르트 '돈 조반니'

광주오페라단 30주년 공연
14~17일 문예회관 대극장

지역에서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되는 오페라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은 광주오페라단(단장 김기준)은 한해도 거르지 않고 대작 오페라를 선보였다. 민간 오페라단으로는 드문 일이다.

광주오페라단의 30주년 기념작은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로 광주오페라단이 처음 선보이는 작품이다. 14~17일 오후 7시 광주 문예회관 대극장.

작품의 주인공 돈 조반니는 카사노바와 함께 세기의 바람둥이로 불리는 스페인의 전설적 바람둥이 돈 후안의 이탈리아식 이름이다.

17세기 스페인 세비야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작품에는 돈 조반니의 손에 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쫓아다니는 안나와 그 약혼자, 돈 조반니와 결혼까지 했다가 그가 도망쳐 버려야 찾으러 다니는 엘비라,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날 돈 조반니의 유혹에 빠져 봉변을 당할 뻔한 체틀리나 등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돈 조반니역으로는 김치영·이호민씨가 더블 캐스팅됐으며 홍선희·노현숙·구성희·이환희·박병국·박광석·박희현씨 등이 출연한다. 이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는 돈 조반니의 하인 레포렐로가 주인의 여성편력을 읊어대며 부르는 '카탈로그의 노래'다. 그밖에 '당신의 손을', '삼색인의 노래' 등도 많이 불려지는 곡이다.

연출은 제2회 오페라대상 수상자로 오랫동안 광주오페라단과 호흡을 맞춘 유희문씨가 맡았다. 유씨는 파티 장면에서 오케스트라를 무대 위로 등장시키고, 각곡 여성을 농락한 돈 조반니의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각 나라 국기를 바닥에 투사하는 등 다양한 연출을 선보인다.

특히 오케스트라 단원과 지휘자가 배우들과 마찬가지로 가발과 의상을 입고 연주하는 색다른 모습도 만날 수 있다.

광주여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 변옥)가 협연하며 광주여대 스텝 무용단(여순심)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변옥씨는 “회극이기는 하지만 모차르트 최후의 작품이라 무게감이 있고, 시대적 상황에 대한 반전, 사회적 이슈도 다루고 있는 오페라”라고 설명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퇴계 이황 매화시 94편 '열흘 가는 꽃 없다고 말하지 말라'

화가 송필용, 시인 안도현·김기현 교수와 공동 출간

세한의 산골짜기/눈과 서리가 깊다/시냇가 매화꽃/아직 마음을 숨기고 있다./친리 밖 친구 보고 싶어도/꼭꼭 참아야한다/ 만나서 두 손 맞잡을 때까지는/서로 생각의 끈 놓지 않아야한다.
(이황 '동계에서 느낌을 노래하다' 전문)

영화는 기본, 연극에 콘서트까지

'롯데시네마 광주' 리뉴얼... 공연장·샤롯데관 오픈

지난 2000년 광주 롯데백화점 9층에 문을 연 '롯데시네마 광주'가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에 들어간다. 롯데시네마는 6개관(1024석) 중 한곳을 공연장으로 변모시키고 프리미엄 영화관인 '샤롯데관'도 운영한다.

264석을 갖춘 6관은 연극,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이 가능한 백화점 문화홀로 변신한다. 극장측은 이를 위해 영화관 스피커와는 별도로 콘서트용 음향 장치를 설치했으며 조명 등도 새롭게 세팅했다.

전국에서 열번째로 문을 여는 샤롯데관은 기존 199석이었던 1관을 리노베이션한다. 샤롯데관은 180도까지 펼쳐지는 넓은 좌석을 갖춘 30석 규모로 전용라운지를 운영, 음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영관 안에서는 맥주와 와인 등을 주문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3만원이다.

그밖에 무인발권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대기줄도 줄어들며 일반상영관인 2·4·5관의 좌석을 교체하고, 좌석간의 간격도 1m20cm로 넓혔다. 또 3·6관은 영화 상영 뿐 아니라 강연회 등도 가능하도록 메도대를 부



좌했다.

전체 리뉴얼이 마무리되는 5월 10일경부터 시사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롯데시네마는 전국에서 모두 560개관을 운영 중이며 광주는 '롯데 시네마 광주수원'(7개관) 등 2곳이 영업중이다. 옛 제일시네마 자리에 들어설 예정인 롯데시네마의 오픈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남도 들녘... 흐드러지게 핀 꽃들

이준석 개인전, 18일까지 공동 원갤러리

80년대 민중미술을 주도했던 이준석씨가 18일까지 광주시 공동 원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지금껏 5월 광주의 현장을 힘있게 그려낸 민중미술로 채웠다면 이번엔 화사한 '꽃'을 화폭 가득 담았다.

'화개(花開)'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1980년대 이후 30년 넘게 전착해 온 민중미술이 아닌, 남도 들녘에 흐드러지게 핀 들꽃과 풍경 등을 담은 작품 25점을 선보인다. 이씨는 "꽃을 그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지난 2008년 '미완의 세월, 화엄(華嚴)'의 꽃 피우기'라는 네번째 개인전을 열 때만 해도 작품 곳곳에는 시대의 아픔과 80년 5월의 열기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붉은 황토빛 들녘에 선 굵은 사실성으로 대변되는 민중미술 대신, '꽃잎 날라라', '그대에게 마음을 주다', '스며들다', '그대 향한 마음II' 등 남도 들꽃과 풍경을 세밀하게 그려낸 작품을 내놓았다.

30년이 흐르는 사이 이씨의 작품도 달라진 걸까. 이



'젊은 날의 기억'

씨는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봄인데도 5월과 겹치면서 30년 넘게 그리지 못했던, 남도 들녘과 흐드러지게 핀 꽃들을 그려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문의 062-222-6547.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0,000원 /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외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최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온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